

## 故 박종철 열사, 故 조수원 동지, 그리고 1996년!

안녕하십니까? 제3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여성오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삶과 투쟁을 담고 있는 자리에서 1996년 새해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문대 선배 열사로서 저학년 시절 저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준 분으로 종철이형을 기억합니다. 또한 총학생회의 힘찬 출발을 열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함께 열어제끼는 것을 특별히 유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즈음 종철이형의 고귀한 희생이 마지막으로 되지 못하고 1996년 새해까지도 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낯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한편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분출되었던 민중의 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생생히 떠올려 봅니다. 이제는 아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민중형제들이 더욱더 광폭한 방식으로 억압받아야 하는 지금 종철이형의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목소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 선 정신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어떠한 생각으로 준비하든 간에 겨울나기의 힘겨움을 극복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계획과 열의로 재충전하여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사람은 물론 이려니와 아직 지난 해의 관성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과 자책으로 새해를 점점 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저의 96년은 앞으로의 1년을 정확히 예측이나 해주려는 듯이 가열찬 투쟁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故 조수원 동지의 죽음에 대하여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바로 그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노제를 지내기로 계획을 하였었는데, 김영삼 정권은 어떠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행사 전반에 대한 불허 방침을 내렸고, 그날 새벽부터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은 천 여명의 전경들에 의해 포위되어 시신탈취의 악몽까지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10시간 여의 대치 끝에 예정을 바꿔 마로니에 공원까지 간단히 치뤄진 노제마저도 앞뒤를 포위한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힘겹게 마쳐야 했습니다. 어제 찾아뵈신 백기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이승만이 나, 박정희나,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우리 민중들을 죽인 정권은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 온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를 마감케 한 종철이형의 고귀한 죽음을 생각할 때 아직도 장애인 노점상을 때려죽이고 시신 탈취와 강제부검이

---

실시하는, 한 노동자를 해고로 수배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가는 문민독재의 작태들은 종철이 형의 염원을 거듭 배신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총학생회 간부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공간에서 남다른 포부로 96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뼈를 깎고 살을 발리는 진정 비장한 각오로 9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은 이 땅의 보수정치꾼들과 가진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총선 100일 전! 얼마전 각 일간지를 통하여 선포된 말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다, 내각제다하여 벌써부터 보수 정객들은 자신들의 지분율을 놓고, 그 위에 '민중들의 삶'이라는 덩까지 얹어서 이리저리 패스, 토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TV라는 엄청난 위력의 전파매체를 통하여 기껏 한다는 것이 준비된 글을 읽어내린 형식도 문제이만,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외면한 채로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나라 바로세우기'라 칭하며 이를 공적화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모습은 현정권의 한계와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만이 통 모르는 사실이 바로 3당 합당을 통하여 군사정권의 생명을 이어주었던 자신의 추잡한 협잡 행각을 또한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 한 허울 뿐인 역사 바로세우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쓰지는 않았더라는 그의 궁색한 변명으로 밝히길 거부하는 자신의 '차기대통령' 시절의 소위 정치자금,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치적 행위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또한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행위가 총선을 대비한 예비된 행동이라는 것에서는 정치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7년 박종철 열사가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중의 고개를 돌리게 하였다면, 1996년 오늘의 우리는 한 평범한 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체제의 외부를 바라보게 되는 듯 합니다. 신물나는 정권, 구역질나는 체제의 우리를 움죄어 오는 거미줄에 질러하면서도 체제 내부의 개혁과 현실도피 사이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저항과 비판정신을 복원하는 것,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종철 열사 9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일 것입니다. 96년 한 해 더욱 가혹해지고 민중기만적일 저들의 망동에 대하여 단호한 투쟁으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투쟁의 대오 속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진군 17년 1월 10일 제3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여성오

---